

서울경제

조국, '문재인 대타'로 '세계 변호사 올림픽' 개막 연설할까

문대통령 갑작스러운 '한미정상회담' 일정
22일 IBA 서울총회 개막 기조연설 사실상 무산
행정부 대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중
의전서열 정리에 유리... 변호사 정책도 관심

윤경현 기자 2019-09-20 15:35:14 사회일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총회 개막식에 기조연설자로 나서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일정으로 사실상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빈 자리를 채울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이 이번 주말 행정부를 대표해 전세계 변호사들 앞에서 실제 연설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의 국가 원수라는 점에서 당초 22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IBA 서울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 행정부를 대표할 법조 관계자를 다시 지정해 섭외해야 한다. 2014년 일본 도쿄 총회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환영사를 한 바 있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 문 대통령의 불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확정될 경우 의전 서열과 법조 경력 등을 고려한 새 인물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다. 그러나 이 총리의 경우 문 대통령 뒤 연설자로 예정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등과 의전 서열의 우열을 다투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전세계 변호사들의 행사에서 외교 수반이나 전·현직 국제 단체 수장이 아닌 이 총리의 순서를 반 전 총장, 송 전 소장보다 무조건 앞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명색이 행정부 2인자인 이 총리를 이들보다 마냥 뒤에 둘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 총리는 법률인 출신이 아니어서 행사 성격에도 어색하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오히려 조 장관을 문 대통령 대타 기조연설자로 유력하게 거론하는 분위기다. 의전 서열에서 반 전 총장, 송 전 소장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보다도 확실하게 뒤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법률인 출신에다 법무행정 수장이라는 점도 행사 성격에 알맞다는 진단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점 역시 행사 주목도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역삼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취임 후 검찰 중심의 개혁 방안만 내놓았는데 IBA 서울총회 기조연설자로 모셔 변호사업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